듣는 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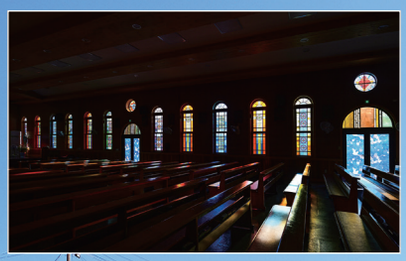
가톨릭마산

주님 봉헌 축일
축성 생활의 날
2025년 2월 2일
제2655호

옥봉동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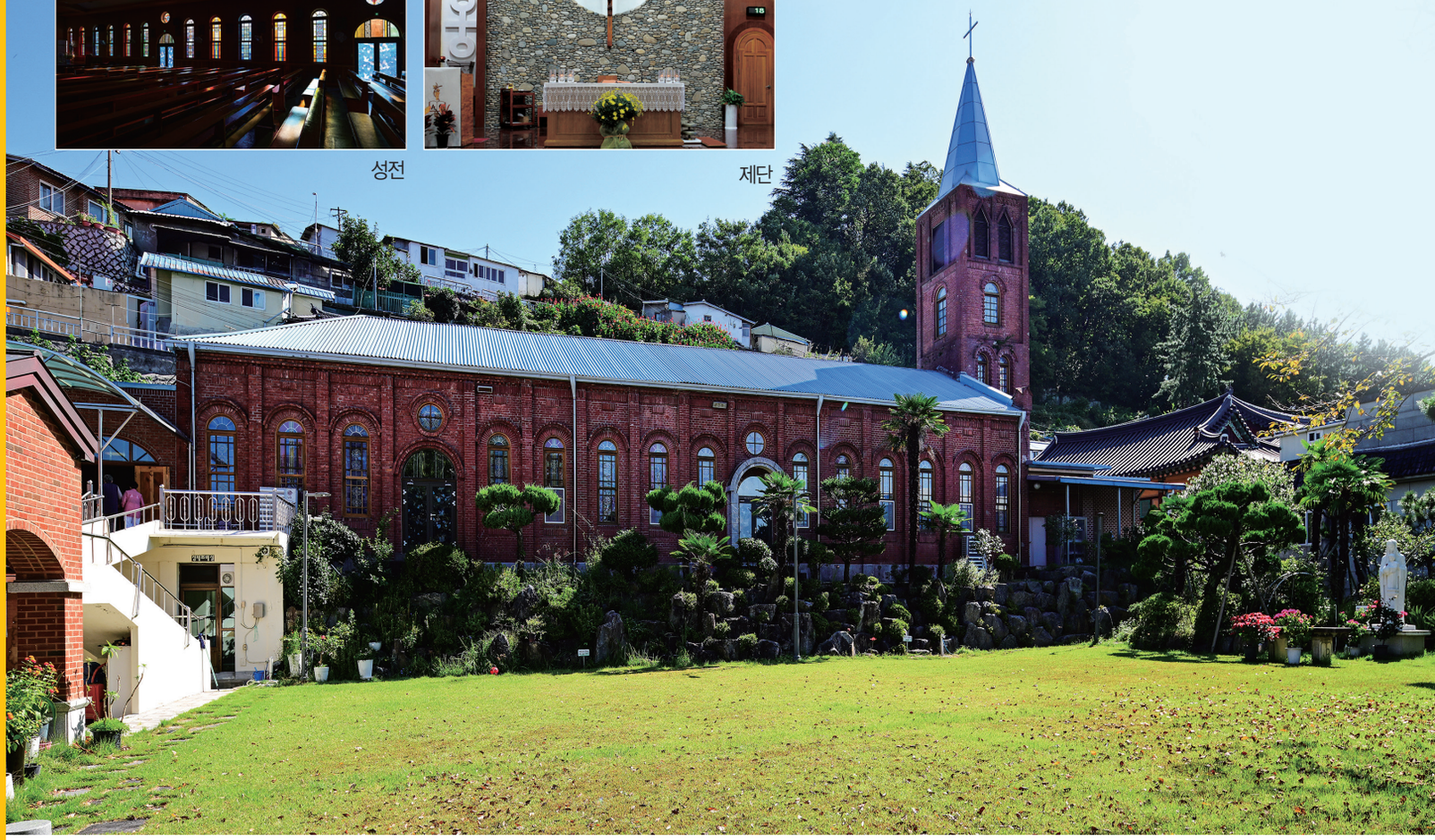
since 1926. 5. 10.

본당주보 :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성모**
현소재지 : **경남 진주시 향교로42번길 5**



성전

제단



주일 전례

제 1 독 서	말라 3,1–4
화 답 송	◎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제 2 독 서	히브 2,14–1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네. ◎
복 음	루카 2,22–40〈또는 2,22–32〉
영 성 체 송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모든 민족들 앞에 마련하신 구원을 보았나이다.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사무처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헌로 72 **홈페이지** http://cathms.kr **유튜브채널** 천주교마산교구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봉헌의 참된 길

신승혁 세례자 요한 **신부**
덕산동 보좌

> 진정한 봉헌이란
> 내가 가진 일부가 아닌
> 하느님께서 주신
> 나의 모든 것,
>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 하느님을 위해
>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이기
>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봉헌 축일은 성모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치르시고 성전에 아기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산모는 아기를 낳고 정결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산모는 아기를 낳을 때 몸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는데, 당시 피는 부정한 것이기에 산모는 아이를 낳고 일정 기간, 곧 40일이 지난 후 정결례 예식을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탄 다음 사십 일째 되는 날, 곧 2월 2일을 주님 봉헌 축일로 지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주님 봉헌 축일은 386년부터 예루살렘에서 지내오다가 450년이 되어서는 초 봉헌 행렬이 덧붙여졌습니다. 그리고 미사 전례 중에 1년 동안 사용할 초를 축복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초를 봉헌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봉헌되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일치하여 나 자신을 봉헌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봉헌과 관련해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봉헌 생활하는 수도자를 기억하고, 수도 성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로 지내길 권고하시며 '봉헌 생활의 날'로 삼으시기도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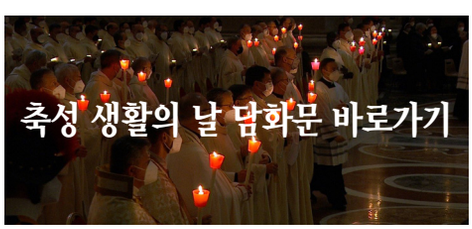
제가 신학생 때, 어린이 미사에 참례할 때였습니다. 한 아이가 봉헌하고 자리에 돌아와 뒷자리에 앉아계신 수녀님을 가리키면서 제게 귓속말로 "왜 수녀님은 봉헌금을 안내요?"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이미 가진 모든 것, 곧 당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했기 때문에 돈을 봉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질문이었지만, '봉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봉헌이란 내가 가진 일부가 아닌 하느님께서 주신 나의 모든 것,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느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의 시메온은 예수님을 두 팔에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시메온은 자기 삶 전부를 주님께 봉헌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기다렸기에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미와 봉헌은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시메온과 아기 예수님을 봉헌한 성모님에게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수도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자신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되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내며 사라지는 초를 닮아 우리도 주님의 빛을 비추고 자신을 봉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희망·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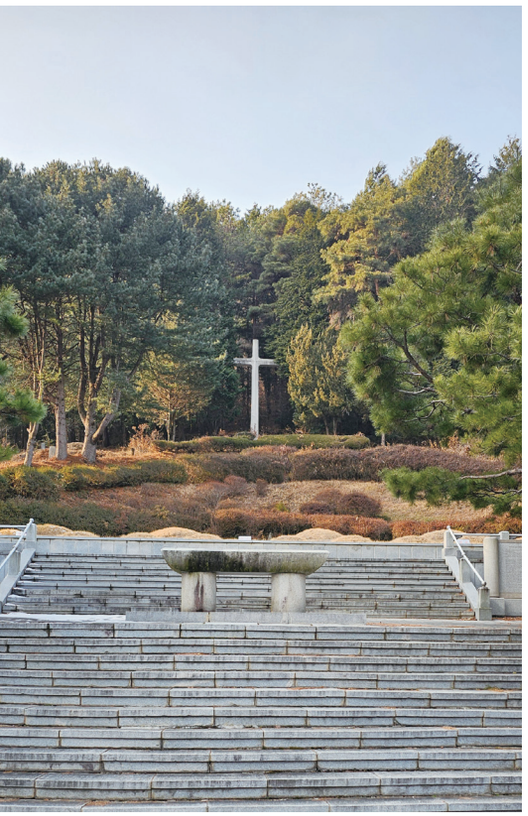
(Fides, spes et caritas cum Christo)

사목 표어의 배경에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교회에 대한 해설이 자리한다. “믿음은 믿고, 희망과 사랑은 기도한다. 그러나 희망과 사랑은 믿음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도 기도한다(Fides credit, spes et caritas orant. Sed sine fide esse non possunt; ac per hoc et fides orat)”(「엔키리디온」2, 7). 이 주교는 여기에서 기도하는 믿음 · 희망 · 사랑이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이해한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 · 희망 · 사랑은 세상에로 나아가는 교회의 실천적 모습이기도 하다.

문장도안	해 설
주교예모	상단에 위치한 주교 예모(禮帽)와 3단의 수실, 십자가는 주교의 품위와 권위를 상징한다. 이는 주교의 사목 임무와 사명의 근본을 이루는 ‘사도들의 후계자(Apostolorum Successor)’로서 그리스도와 긴밀히 결합된 주교의 표상을 나타낸다.
방패·십자가	중앙의 방패는 교회를 수호하는 주교의 직무를 의미한다. 방패 상단 좌측 바탕의 노란색은 ‘희망’을, 상단 우측 바탕의 적색은 ‘사랑’을, 그리고 하단의 바탕색인 청색은 ‘믿음’을 상징한다. 방패 뒤편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이어받은 ‘구원의 인도자’라는 표지이다.
성경·물줄기	방패 중앙에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책으로 형상화되어 위치한다. 이 책으로부터 계시진리의 원천인 성경과 성전을 상징하는 두 개의 물줄기가 아래로 흐르고 있다. 이 이미지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구원의 샘인 복음이 세상에 퍼져나가 하느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 세상을 적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빨마가지	방패 상단 좌측 ‘희망’을 상징하는 노란색 바탕 위에 그려진 붉은 종려나무 가지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 희망 안에서 죽기까지 신앙을 증거한 순교자의 영광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순교자들의 영광 위에 세워진 거룩한 교회인 마산교구를 의미한다.
태 양	방패 상단 우측 ‘사랑’을 상징하는 적색 바탕 중심에 자리 잡은 태양은 사랑 자체이시며 사랑으로 불타는 예수님의 성심과 그 빛을 드러낸다. 이 사랑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려는 새 주교의 열정과 염원을 담고 있다.

백지사지白紙死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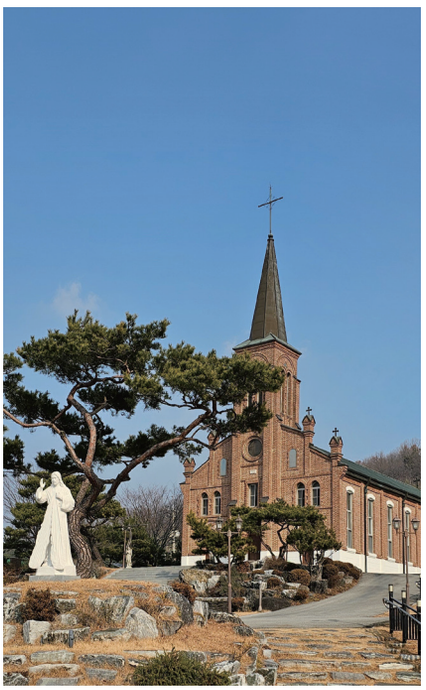
민창홍 요한 시인 (시, 글, 사진) / 가톨릭문인회


천호성지 순교자 묘역

여산 숲정이 성지

활짝 열어젖힌 하늘의 문 푸르다
농사일도 끝냈겠다 빛도 쨍쨍하고
창호지 바르기 좋은 날이다
당신을 만나러 가는 문마다 햇살 가득한데
순례자는 눈물이 난다
망나니처럼 볼이 터져라 물 한 웅큼 물고
악마가 되어 얼굴에 뱉으니
문살에 닥나무 종이 하얗게 붙어 팽창하고
코가 막혀 숨을 쉴 수 없다
무엇이 우리의 길 막는가
마당 한가운데 환하게 웃고 있는 나무는
줄지어 서 있는 하느님 바라기
길을 막고 오물을 뱉을 때는
제 몸도 더럽혀졌다는 것 아는가
말문이 막혀 눈을 감고 묵상하는
이 끔찍한 도모지(塗貌紙)의 현장
피가 거꾸로 솟다가
얼굴에 뿌려진 물 성수로 표징되어
하늘로 날아가는 꽃잎 하나
단단한 믿음 뿌리내리는 기적이다
오늘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을 것 같다

천호성지 부활성당


여산성지 성당

|여산순교성지|

여산성지는 병인박해 2년 후인 1868년 무진년에 많은 천주교인이 목숨을 바쳐 신앙을 증거한 순교 성지이다. 또한 여산성당은 여산순교를 기념하여 나바위성당에서 분리되어 1958년 건립되었다.

여산은 기록으로만 보아도 이곳에서 순교하신 분은 25명에 이르며, 전하는 바에 따르면 적어도 40여 명이 이곳에서 순교한 것으로 추정된다. 순교자들은 당시 여산군의 속읍지였던 고산, 금잔, 진산 등에 숨어 살다 잡혀온 이들이다. 1983년 전주교구는 믿을만한 구전을 토대로 김성화 야고보 등 여산 순교자 열 분의 유해를 발굴하여 천호성지의 묘역에 안장하였다.

여산의 박해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끔찍하고 혹독했다. 많은 신앙 선조가 여산 감옥과 숲정이, 뒷말, 배다리, 장터, 기금터, 옥터, 백지사터(여산 칠순교지)에서 일정한 형장이나 형벌이 없이 마구잡이로 죽임을 당하였다. 교우들은 매질이나 교수형(絞首刑), 백지사(白紙死)형 등의 참혹한 죽음으로 순교하였다.

희망살기, 성령의 기억으로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성령과 희망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로마 5,5).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례로 시작되고 하느님 은총을 따름으로써 발전되어, 성령의 활동으로 언제나 새로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희망으로 활기를 얻습니다. 성령께서는 순례하는 교회의 삶 안에 항구히 현존하심으로써 희망의 빛으로 믿는 모든 이를 밝혀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우리 삶을 지탱하고 활력을 주는 그 희망의 불이 타오르도록 지켜 주십니다. – 희년 칙서 2,3항

므네메, 성령의 기억

“전례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전례헌장 10항)입니다. ‘성찬례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 제사를 기념하기에, 성찬 제정 말씀 후 드리는 기도를 기념, 또는 **아남네시스**라 부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362항 참조). 이 기념은 구원 사건을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체험되도록 **현재화**시키기에,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거나 상기하는 것과는 다르다 합니다.

기억은 과거를 ‘지금 그리고 여기’라는 현재의 시공 안으로 현재화시키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지만, 동시에 늘 망각을 동반한 기억입니다. 전례가 교회 활동의 정점이면서도, 그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교회의 힘이 약하다면, 그것은 망각을 동반한 기억 때문입니다. ‘현재화’시키는 전례적인 기억, 기념으로서의 아남네시스를 넘어, **늘 ‘현재’인 기억**이 요청됩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존재론적 기억으로, 모든 것을 자기 ‘기억의(mnemonico) 태중’(신성 내부, 삼위일체 내부의 태중)에 현재의 것으로 보존하신다. 그는 **신적이고 절대적인 기억(Mneme므네메)**이며, 따라서, 망각하기 때문에 되살릴 필요가 있는 인간의 기억, 곧 아남네시스(반복적, 회복적 기억)가 아니다. 그 성령은 또한 그리스도의 전 역사에 대한 기억이기도 하다. – 「성사, 상징과 신학」, Giorgio Mazzanti(조르지오 마짠티).

기도, 성령의 기억으로 살기

“Ite, missa(미싸) est,” (가시오. 여러분은 파견missa되었습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미사 끝에 신자들에게 하는 사제의 라틴어 파견인사입니다. 전례로서의 미사뿐 아니라 **전례 후 파견되어missa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미사**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기억은 전례적 기억에만 머물고 전례적으로만 회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당에 왔을 때와 세상을 살아갈 때의 나는, 같은 ‘그리스도 신앙인인 나’여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는 영적인 “생명의 숨결”이라 하신 교황님 말씀처럼, 성령의 그 므네메 기억이 나의 온 존재에 새겨진 기억, 뼈에 사무친 기억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억을 내 체험으로 각인시키고 내 삶에 통합시켜, 그 기억의 화신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살다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희망은 우리 “영혼의 닻”(히브6,19)으로서 우리를 지켜주고 이끌어줍니다.

기억할 선종 사제

박두환(베네딕토) 신부
1995년 2월 6일

기억할 선종 사제

김민수(유스티노) 신부
2013년 2월 7일

지구장 본당 방문

일시: 2월 5일(수)
본당: 망경동
일시: 2월 6일(목)
본당: 신안동, 옥봉동

교구/본당

재무평의회
일시: 2월 4일(화) 10:00
장소: 마산교구청

장례지도사 5차 교육
일시: 2월 7일(금)~9일(주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신앙대학
일시: 2월 8일(토) 10:00
장소: 마산교구청

청년간부 연수
일시: 2월 8일(토)
장소: 마산교구청

성경 교육봉사자 첫 파견자 연수
일시: 2월 9일(주일) 14:00
장소: 마산교구청

주일학교 대표교리교사 연수
일시: 2월 9일(주일)
장소: 마산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M.E 월례회
일시: 2월 3일(월) 20:00
장소: 마산교구청

군종후원회 총회
일시: 2월 8일(토)
장소: 마산교구청

정의평화위원회 정기총회
일시: 2월 12일(수) 19:00
장소: 마산가톨릭문화원

가톨릭여성회관 이주배경청소년 상담안내
대상: 이주배경청소년(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가정청소년, 탈북청소년)
시간: 매주 월요일(협의 가능)
장소: 가톨릭여성회관(마산역 앞)
문의: 055·255·5080, womencenter@hanmail.net

기 타

2025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신학 전반 26과목
원서접수: 11월 11일(월)~25년 2월 14일(금)
문의: 02·745·8399, http://ci.catholic.ac.kr

한티 가는 길(도보순례)
일시: 3월 1일~3일, 4월 10일~12일, 5월 22일~24일, 6월 19일~21일, 11:00 입실, 17:00 마침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강사: 류 에프렘 수사
참가비: 2박3일, 25만원
문의: 010·6791·0071(문자)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성지.역사.생태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한라산포함: 2월 8일~10일, 2월 14일~16일, 2월 22일~24일
생태순례: 3월 17일~19일, 3월 22일~24일, 3월 28일~30일, 4월 2일~4일
성지순례: 3월 1일~4일 3월 9일~12일, 4월 12일~15일, 4월 27일~30일
접수: 02·773·1463 / 064·756·6009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피정 피정
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 (2025년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단체
일시: 3월 1일~3일, 3월 8일~10일, 3월 13일~16일(추자도) 3월 18일~20일, 3월 23일~26일(추), 3월 29일~31일, 4월 1일~3일, 4월 5일~8일(추), 4월 10일~12일, 4월 14일~16일, 4월 25일~27일
접수: 02·773·1455 / 064·796·4182

성혈영성의집 별관 '쉼자리' 이용 안내
단체: 최대 13명 1일 숙박 20만원
개인피정: 최소 2인 이상 1일 숙박 3만
식사 개별 취사
위치: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옥계리 11
문의: 010·8025·9759, 그리스도의성혈흠숭수녀회

바오로딸 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성경공부
원서: http://uus.pauline.or.kr/1월 31일 마감
문의: 02·944·0819~23, 010·5584·8945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 (화) 14:00~20:00
장소: 가톨릭문화원(구 교구청) 2층
내용: 정서적 고통, 인간관계, 면담고해성사
상담자: 강윤철 신부(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문의: 010·3551·2038

바오로딸 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법: 우편 또는 이러닝(동영상) 성경 공부
접수: https://uus.pauline.or.kr / 2월 28일(금) 마감
문의: 02·944·0819~23, 010·5584·8945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미사 주례	문 의
교 구	2월 3일(월) 19:00	남성동성당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루카1,37)	고영민 안드레아 회장 (서울교구)	진동길 마리오 신부	010·5247·9900
청 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 20:00 기도회		010·6667·7809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02.2281.9070/www.cttour.org
4/1~4/12 산티아고 도보 499만원
4/5~4/16 희년 이탈리아 435만원
4/21~5/2 동부유럽·발칸반도 510만원
4/24~5/5 유럽 성모발현지 555만원

대성의전 경남장묘컨설팅
산소 이장·무연고 처리
수목장·평장묘 터 알선
010-4848-9944
마산회원구 회성남 18길 2, 1층(회성동)
김 종 운(클레멘스)

경대약국
·친절한 복약지도
·영양 복약상담
진주 외 지역은 전화상담도 가능
경상대병원 처방약은
경대약국에서
진주시 진주대로 816번길 18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주차타워 맞은편)
055.755.2020
하종인 율리아노, 도승현 엘리사벳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릭스상가 1층
마산합포구 오동북 16길 27 가톨릭문화원(구교구청)
055·266·7010/070·5147·7010

두 여동생을 바라보며

박성임 클라라 시조시인 / 가톨릭문인회

노래하지 않은 풍차

무채색 하늘가에 어수선한 바람소리
오랫동안 멀어진 풍경을 안아본다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
풍차의 콧노래를

위의 작품은 최근에 쓴 단시조 형식의 정형시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자기만의 목소리와 그 모습의 개성을 지니고 있다. 어느 날 문득 기차를 타고 동생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 용인을 찾아갔다. 차창 밖으로 비춰진 돌지 않는 풍차가 눈에 들어왔다. 자기 몫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의 안타까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함과 체념을 공유하면서 조금 슬퍼졌다. 그래도 희망은 가져본다.

용인의 두 여동생은 각자 너무나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여동생 로사리아는 현실적이고 철저한 실용주의다. 빈틈없이 계획적인 생활로 자기만의 프레임 속에 갇혀 산다. 적어도 시행착오의 횟수는 거의 없는 편이다. 음악적인 감각이 뛰어나 KBS 어린이합창단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 생활전선에 허덕이다보니 끝까지 자기계발의 꿈을 실현하지 못했다. 어린이 동요곡의 선구자 이수인 작곡가의 제자로 무척 사랑 받았으며 선생님께서도 미래의 성악가로 키우지 못해 많이 안타까워하셨다.

둘째 여동생 베로니카도 역시 음악적 소양이 뛰어나고 감성적이며,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보면 동정과 연민으로 가득 차서 곧 바로 선행과 자선을 베푼다. 국문학 박사로 마산의 고등학교 교단에 잠시 머물렀고 대학강단에 선 이력도 짧았다. 그럴 이유는 충분하다. 아들딸 하나를 골고루 낳아 잘 기르던 중 늦둥이 아들을 두게 되었다. 늦둥이 육아에 전념하다보니 역시 자아실현의 꿈을 펼치지 못했다.

둘의 공통점은 결혼과 동시에 자신의 꿈을 접어야 했던 것, 둘 다 KBS 어린이합창단이었고 부모님께 양질의 DNA를 선물로 받은 점이다. 여기서 잠시 정리를 하자면, 아무리 좋은 소질을 갖고 태어나도 그것을 갈고 닦지 않으면 소용이 없음과 쉽게 좌절하고 포기해 버리는 것, 역시 좋은 사례라고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니다.

신앙의 길도 이와 다르지 않다 끝까지 하느님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뜻을 포기하지 않고 하느님을 믿고 바라며 그분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 베로니카는 하느님을 선택했다. 아니 하느님께서 미리 뽑아두셨다. 용인의 신안성당에서 성령회장으로 성가대 지휘자로 종횡무진 주님을 따라 다녔다. 건강을 타고난 것도 아닌데 밤낮으로 하느님 사랑에 푹 빠져 있다. 베로니카를 보면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 자기 의지와 뜻보다 하느님의 뜻을 먼저 묻는 베로니카가 참 아름답다. 물론 현실에 충실하며 사는 로사리아도 대견하다.

하느님은 우리 편

황봉철 베드로 신부 / 성사전담

"우리는 그러나 압니다, 그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로마 8,28). 이 구절은 희랍어 원문의 어순에 따라 직역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하여 믿고 삽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느님을 믿고 산다고 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과 역경 없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이나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성경 말씀을 읽고 음미할 때면,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참 맞다"라고 공감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 집에서 학교나 성당을 가려면 늘상 시장통을 거쳐서 가야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장통 근처에 사는 애들은 좀은 뺀지랍고, 말은 거칠고, 욕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욕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곡을 붙여 노래로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 노래로 하는 욕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신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어 읊조려 보지는 못했습니다. 헤아려 보니, 그 "노래 욕"을 해 보긴 했네요. 유학 시절 우리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인스부룩에서, 배가 고프면 우리 음식이 생각나고 그러면 이어서 고향 생각이 나고, 고향 생각이 나면 가끔은 어릴 때 추억들과 함께 문득 그 노래 욕이 생각나,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터이니 하며 소리를 내어 불러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어릴 때의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내가 신자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시장통 애들처럼 노래 욕이나 하고 돌아다녔으면, 신학교에 가고 신부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또 있습니다. 박사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공부에 진척이 없어 고민하며, 성서 연구소(Institut)로 갈 때였습니다.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난 그 나라 친구가 내가 공부하고 있는 논문 제목을 알기에, 나에게 물어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무슨 책을 아냐고. 그 책은 나의 논문에 꼭 필요한 책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그 연구소에 가려고 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 책을 알 수 있었을까? 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나에게는 자주 일어났고, 사제 생활에서도, 요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 아니 성사전담 사제가 된 이후 소일삼아 성서를 새로 번역하고자 지금 몇 년을 씨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배우는 것도 많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괜히 시작하여 스스로 어려움을 자처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자다가도 갑자기 전날 잘 풀리지 않았던 성경 구절이 생각나고, 그것을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이끌어 가게 하여 맺혔던 것이 확 뚫리고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결코 나의 의도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위의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에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위의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제 생활에서 체험하고 느낄 때, 저는 "하느님이 우리 편이야"라는 말씀을 소리 내어 봅니다. 아니 반대로 "하느님이 우리 편이야"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느님의 편이야! 그렇게 되도록 십분 더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고 다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편!", 이 말씀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